

27장. 욥의 마지막 말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였으므로 이제 소발의 차례이지만, 소발의 말은 없고 따라서 욥이 비사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27:1). 여기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빼앗으신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자기의 의로움을 맹세한다(27:1-6).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까지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한다. 이처럼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죄악된 자만심 때문이 아니다. 친구들의 공격에 대답하면서 자신의 의를 변호하실 분으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욥은 엘리마스에게 세 번째로 대답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24:18-25),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하여서도 함께 이야기한다(27:11-23). 이제껏 욥의 친구들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공격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욥이 자신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27:7).

묵상과 실천:

- 1.